

남자유아교사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Parents' and Female Teachers' Perceptions
of Mal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최지훈(Ji-Hoon Choi)¹⁾

임원신(Won-Shin Lim)²⁾

ABSTRACT

This was a comparative study,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mal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ettings on the part of both parents and female teachers at such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necessary or not to employ qualified mal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both the female teachers and the parents responded positively in general. Second, when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the role of male teachers, both teachers and parents believed that male teachers would be able to help children to develop their potential. Third, the female teachers indicated that they believed that the male teachers may need to develop a stronger sense of vocation, fairness, and sincerity when engag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cording to the parents, female teachers generally show greater affection and magnanimity towards children. Fourth, when examining the femal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male teachers' teaching capabiliti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ir opinions were generally that the capabilities of male teachers depend on their training and educational level. Fifth, when examining the parent's perceptions of the male teacher's teaching capabilit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ose parents who have experience of male teachers gave higher ratings regarding their capabilities than those parents who had no previous experience of male teachers. Finally, it was observed that, when comparing the teacher group with the parent-group, the teacher-group assessed the male teachers' teaching abilities higher than the parent-group did.

* 본 논문은 2010년도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²⁾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hoon Choi, Department of Child Studie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E-mail : 2011310876@khu.ac.kr

Key Words : 남자유아교사(male teachers of childcare), 성역할(gender-role), 성불균형(gender imbalance).

I. 서 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영아기를 벗어나면 대다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교육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아교사와 유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가 부모와의 관계 이외에 유아교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또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성역할 발달은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한 개인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Lee, 1999). 성역할 고정관념은 매우 어린 나이에 발달한다. 6세경에는 성인과 거의 유사한 지식을 갖추게 되며, 유아기에 획득한 성역할 개념은 성인이 되어도 한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Gu, 1999; Hwang, 2002). 이런 점에서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에 미치는 남자유아교사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자유아교사에게 어떤 성역할 특성을 기대하며, 강조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인적 환경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그 인적 환경구성에는 남녀의 성분포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Choi, 2001).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남자유아교사 618명 대비 여자유아교사 34,797명으로 약 5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EDI, 2009).

이렇게 남자유아교사의 수가 적은 이유는 유아와의 신체적 접촉이 성(性)적인 문제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Farquhar, 1997; Robinson, 1988; Rodriguez, 1997; Shaham, 1991)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에서 근무 중인 남자영유아교사들은 자신과 영유아, 특히 여아와의 신체 접촉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지 않도록 조절하여 조심한다고 응답하였다(Choi, 2003; Choi, 2006; Jo & Lee, 2004a; Kim, 2002). 이는 남자유아교사가 이겨내야만 하는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자교사는 보육활동에서 여자교사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놀이 활동에서 좀 더 활동적이며, 대부분의 여자교사보다 많은 신체적 상호작용을 하고, 유아의 사회, 정서, 인지발달에 많은 성취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아동 성 학대 사례는 유아교육에서 남자유아교사의 이미지를 비정상적으로 강화하는데 한 몫을 했으며, 활동 범위를 위축시킨다(Robinson, 1988).

이러한 사회적인 잘못된 시각과는 달리 남자유아교사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eong(2008)은 남자유아교사의 역할과 돌봄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이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남자유아교사는 여자 유아교사의 양육과는 다른 형태의 경험과 학습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남자유아교사가 여자 유아교사에 비해 남아들에게 더 효과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아의 관점과 경험을 남자유아교사가 공유하고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Cushman, 2005). 남자유아교사들의 성역할 모델 수행에 관해 언급한 연구들(Cameron, Moss & Owen, 1999; Choi, 2003; Jo & Lee, 2004a; Mills, Martino & Lingard,

2004; Montecinos & Neilsen, 1997; Skelton, 2003; Sumsion, 2000)에 의하면, 남자유아교사들은 영유아에게 올바른 남성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이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남자유아교사가 양육에 참여할 경우 아동은 자신의 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며, 모든 일에는 정해진 고정관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Sim (2002)은 남자유아교사가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격려하고, 아버지가 양육활동에 더 많은 책임을 인식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남자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분야에서 교직의 성별 불균형 현상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와 논의들이 이루어져 온 반면, 유아교육기관에는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연구는 드물고, 연구대상이 주로 단일집단에 한정되어 있으며, 남자유아교사의 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부모와 교사 집단의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유아교육은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수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와 여교사 집단은 유아교육기관의 성불균형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남자유아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또한 아동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에 기초하여 가장 민감한 스킨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는지, 그리고 남자유아교사의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 등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 역할, 조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 2)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와 학부모들을 연구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임의로 선정된 학부모와 교사 각 25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학부모 210명, 교사 205명으로 부터 회수하였으며 이중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학부모 207명, 교사 201명의 질문지 결과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배경변인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첫째,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남자유아교사의 역할 및 조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Lee(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3개 범주 11문항으로 비메트릭(범주형)자료로 구성하였다. 둘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생활지도능력, 학부모와의 관계, 교직 적성, 직무수행 능력,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eo(2004)와 Jo(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5개 범주 3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매우 부족하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자유아교사에 대한 교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participant variable

Variable	Teachers		Parents		
	N	%	N	%	
Gender	Male	0	0	53	25.6
	Female	201	100	154	74.4
Age	Twenties	156	78.4	18	8.7
	Thirties	41	20.6	161	77.8
	Forties	4	1	28	13.5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1	.5	69	33.3
	Two-years diploma	10	5.0	55	26.6
	Bachelor's degree	162	80.6	68	32.9
	Master's degree	28	13.9	15	7.2
Type of institute	Preschool	50	24.9	15	7.2
	Childcare center	151	75.1	192	92.8
Experience of regular male teacher	Have	14	7.0	23	11.1
	Have not	187	93.0	184	88.9
Experience of non-regular male teacher	Have	169	84.1	137	66.2
	Have not	32	15.9	70	33.8
Career	1~2 years	74	36.8	-	-
	3~4 years	107	53.2	-	-
	More than 5 years	20	10	-	-
Gender of children	Boys	-	-	104	50.2
	Girls	-	-	103	49.8
Age of children	6~7 years old	-	-	23	10.7
	3~5 years old	-	-	151	73.3
	Less than 3 years old	-	-	33	16
Total		201	100	207	100

직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교사와 학부모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과 역할 및 조

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의 일반사항에 따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에 대하여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Table 2>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 of male teacher questionnaire

Domain	Questionnaire	Cronbach's α	
		Teachers	Parents
1. Necessity of male teacher	3		
2. Role of male teacher	4		
3. Qualification of male teacher	4		
	1) Living guidance	.90	.85
	2) Relationship with parents	.82	.89
4. Capacity of male teacher	3) Aptitude in teaching	.70	.74
	4) Performing ability	.71	.90
	5)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76	.81

III 결과 및 해석

1.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 역할 및 조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1)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Table 3을 참고하여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응답한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 중 여성이 높은 비율에 대한 문항에서는, 교사의 경우 110명(54.7%)은 우려할만한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학부모는 104명(50.2%)이 바람직한 것도 우려할만한 것도 아니라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교사에 비해 학부모가 유아교사들의 여성화에 대해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교사의 여성화에 대해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교사와 학부모가 어떤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교사의 경우는 128명중 79명(61.7%), 학부모의 경우는 44명 중 21명(47.7%)이 유아의 인성형성이라고 응답하여, 교사와 학부모 모두 여성 교사의 비율이 높을 때 유아의 인성형성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에 남녀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에서는 교사의 경우 119명(59.2%), 학부모의 경우 120명(58%)으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필요하다면 남녀 교사의 학급 참여형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 교사의 경우 201명 중에 99명(49.2%)이 상관없음으로 인식하였고 92명(45.8%)은 여자 유아교사 남자유아교사 혼합반을 이야기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194명 중에 145명(74.8%)이 여자 유아교사 남자유아교사 혼합반을 교사의 학급 참여형태로 제시했다.

유아교육기관의 남녀교사의 비율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사들 중 110명(54.7%)은 '남자유아교사는 40~60%, 여자 교사는 40~60%'가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부모의 경우는 91명(44%)이 '남자 교사 20%이하, 여자 교사 80%이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다.

2) 남자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Table 4와 같이 남자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자교사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는 93명(46.3%)이,

<Table 3> Perception of male teacher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No.	Contents	Specific contents	Teachers N(%)	Parents N(%)
1	Perception about high ratio of female teacher in child education field	Very desirable phenomena	24(11.9)	9(4.3)
		Desirable phenomena	29(14.4)	50(24.2)
		Not desirable or worriable phenomena	20(10.0)	104(50.2)
		Worriable phenomena	110(54.7)	36(17.4)
		Very worriable phenomena	18(9)	8(3.9)
		Total	201(100)	207(100)
1-1	Influence of high ratio of female teacher (people who answered on number 4,5 from No.1)	Living guidance	33(25.8)	14(31.8)
		Class activity	15(11.7)	9(20.5)
		Character building on child	79(61.7)	21(47.7)
		Administration skill	1(0.8)	0(0)
		Total	128(100)	44(100)
2	Thinking about necessity of male teacher on child education institute	Very helpful	46(22.9)	41(19.8)
		Helpful	119(59.2)	120(58.0)
		No idea	36(17.9)	33(15.9)
		Unhelpful	0(0)	12(5.8)
		Very unhelpful	0(0)	1(0.5)
		Total	201(100)	207(100)
2-1	Class type of male and female teacher (people who answered on number 1,2 and 3 from No.2)	Individual class	6(3.0)	18(9.3)
		Mixed class	92(45.8)	145(74.8)
		Doesn't care	99(49.2)	22(11.3)
		No idea	4(2.0)	9(4.6)
		Total	201(100)	194(100)
3	Ratio of male and female teacher on child education institute	Male teacher more than 80%, female teacher less than 20%	0(0)	1(0.5)
		Male teacher more than 40~60%, female teacher less than 40~60%	110(54.7)	83(40.0)
		Male teacher less than 20%, female teacher more than 80%	52(25.9)	91(44)
		Doesn't matter the ratio of male and female teacher	39(19.4)	32(15.5)
		Total	201(100)	207(100)

학부모는 94명(45.4%)이 유아의 잠재력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해주는 것을 높게 인식하였다.

남자교사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역할은 교사의 경우 83명(41.4%)이 유아들에게 남성 역할 모델 제공을 기대하며 학부모의 경우 93명(44.9%)이 실외놀이, 신체적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남자교사의 스킨십에 대한 생각으로 교사는 127명(63.2%)이 '좋다'라고

인식한 반면, 학부모는 76명(36.7%)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싫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1명(0.5%)인 반면에 학부모는 50명(24.2%)이었다. 남자교사의 스킨십의 허용수준에 대해서는 교사는 110명(54.7%)이 안아주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학부모는 95명(45.9%)이 악수하는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Table 4> Perception of male teacher's role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No.	Contents	Specific contents	Teachers N(%)	Parents N(%)
4	Important roles of male teacher	Help child express the potential	93(46.3)	94(45.4)
		Making a fundamental habit	59(29.4)	44(21.3)
		Dealing with children as parents	41(20.4)	62(29.9)
		Offering a basic education for school readiness	8(4.0)	7(3.4)
		Total	201(100)	207(100)
5	Special roles of male teacher	Good at caring child	21(10.4)	7(3.4)
		Being a male role model	83(41.4)	62(29.9)
		Helpful to guide boys	58(28.8)	45(21.8)
		Outdoor play and physical play	39(19.4)	93(44.9)
		Total	201(100)	207(100)
6	Thinking about male teacher's physical affection	Very good	24(11.9)	14(6.8)
		Good	127(63.2)	76(36.7)
		Doesn't care	49(24.4)	63(30.4)
		Bad	1(0.5)	50(24.2)
		Very bad	0(0)	4(1.9)
Total	201(100)	207(100)		
7	Permissible level of physical affection	Putting a diaper	9(4.5)	14(6.8)
		Hug	110(54.7)	75(36.2)
		Kissing on the cheek	66(32.8)	18(8.7)
		Shaking hands or high five	16(8.0)	95(45.9)
		Impermissible	0(0)	5(2.4)
Total	201(100)	207(100)		

3) 남자유아교사의 조건에 대한 인식

Table 5와 같이 남자유아교사의 조건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학력에 대해 교사는 167명(83.1%)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학부모는 87명(42.1%)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인식하였다. 남자교사의 전공은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응답을 보였는데, 교사는 141명(70.1%)이 학부모는 130명(62.8%)이 반드시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남자 교사의 경력의 경우 교사는 89명(44.3%)이 초임~1년이라 인식하였고 학부모는 141명(68.1%)이 2~4년으로 인식하였다. 남자 교사의 결혼여부에 대해서 교사는 미혼이 좋다고 121명(60.2%)이 응답하였으며, 학부모는 85명(41.1%)이 기혼이 좋다고 인식하였다.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교사가 미혼일 경우 좋은 이유에 대해 학부모 중 23명(53.5%)과 교사 66명(54.5%)이 남자 교사가 미혼일 경우 명랑하고 활동적일 것

<Table 5> Perception of male teacher's condi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No.	Contents	Specific contents	Teachers N(%)	Parents N(%)
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diploma	0(0)	3(1.4)
		1 year course	0(0)	18(8.7)
		2 years diploma	26(12.9)	87(42.1)
		Bachelor's degree	167(83.1)	80(38.6)
		Master's degree	8(4.0)	19(9.2)
		Total	201(100)	207(100)
9	Major	People who majored child education only	141(70.1)	130(62.8)
		Any major	54(26.9)	46(22.2)
		Any major with self-sacrifice	6(3.0)	19(9.2)
		Anyone can do with loving child	0(0)	12(5.8)
		Total	201(100)	207(100)
10	Career	1 year	89(44.3)	24(11.6)
		2~3 years	42(20.9)	141(68.1)
		More than 5 years	10(5.0)	22(10.6)
		Doesn't matter	60(29.8)	20(9.7)
		Total	201(100)	207(100)
11	Marital status	Unmarried	121(60.2)	43(20.8)
		Married	4(2.0)	85(41.1)
		Doesn't matter	76(37.8)	79(38.1)
		Total	201(100)	207(100)
11-1	Reason why choose unmarried teacher (people who answered No. 1)	Brightness and active	66(54.5)	23(53.5)
		Young and healthy	23(19.1)	11(25.6)
		A lot of time	20(16.5)	6(14.0)
		Maintaining intimate relationship	12(9.9)	3(7.0)
		Total	121(100)	43(100)
11-2	Reason why choose married teacher (people who answered No. 2)	Infant care experience	4(100)	26(30.6)
		High level of understanding and interesting	0(0)	49(57.6)
		Accepting parents' request	0(0)	5(5.9)
		Caring child warmly	0(0)	5(5.9)
		Total	4(100)	85(100)

이라고 인식하였다. 반대로 기혼을 선택한 교사 4명(100%)은 자신의 육아경험을 반영하므로 좋을 것이라고 인식한 반면 학부모 49명(57.6%)은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좋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2.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1)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사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남자유아교사의

<Table 6> Female teachers' perception of male teacher's education level

Variable	Contents	M	SD	F	Duncan
Living guidance ability	Two-years diploma(n=11)	3.20	.92	34.07***	A
	Bachelor's degree(n=162)	4.49	.46		B
	Master's degree(n=28)	4.29	.55		B
Relationship with parents	Two-years diploma(n=11)	3.50	.63	10.83***	A
	Bachelor's degree(n=162)	4.24	.47		B
	Master's degree(n=28)	4.24	.69		B
Aptitude in teaching	Two-years diploma(n=11)	3.54	.62	13.26***	A
	Bachelor's degree(n=162)	4.21	.37		B
	Master's degree(n=28)	4.19	.44		B
Performing ability	Two-years diploma(n=11)	3.59	.54	20.10***	A
	Bachelor's degree(n=162)	4.45	.43		B
	Master's degree(n=28)	4.29	.51		B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Two-years diploma(n=11)	3.62	.50	18.55***	A
	Bachelor's degree(n=162)	4.36	.38		B
	Master's degree(n=28)	4.16	.51		B
Qualification teaching (Total)	Two-years diploma(n=11)	3.54	.56	21.55***	A
	Bachelor's degree(n=162)	4.35	.35		B
	Master's degree(n=28)	4.24	.48		B

* $p < .05$. ** $p < .01$. *** $p < .001$.

교직능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교사의 학력, 경력, 비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6과 같이 교사의 학력에 따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지도능력, 학부모와의 관계, 교직적성, 직무수행능력, 유아발달영향, 교직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지도능력에서는 전문대를 졸업한 교사($M = 3.20$)와 대학($M = 4.49$)과 대학원($M = 4.29$)을 졸업한 교사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4.07$, $p < .001$).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전문대를 졸업한 교

사($M = 3.50$)와 대학($M = 4.24$)과 대학원($M = 4.24$)을 졸업한 교사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10.83$, $p < .001$), 교직적성에서도 전문대를 졸업한 교사($M = 3.54$)와 대학($M = 4.21$)과 대학원($M = 4.19$)을 졸업한 교사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3.26$, $p < .001$).

직무수행능력의 경우에는 전문대를 졸업한 교사($M = 3.59$)와 대학($M = 4.45$)과 대학원($M = 4.29$)을 졸업한 교사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20.10$, $p < .001$),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전문대를 졸업한 교사($M = 3.62$)와 대학($M = 4.36$)과 대학원($M = 4.16$)을 졸업한 교사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Table 7> Female teachers' perception of male teacher's qualification in teaching

Variable	Contents	M	SD	F	Duncan
Living guidance ability	1~2 years(n=74)	4.55	.59	4.69*	B
	3~4 years(n=107)	4.33	.51		AB
	More than 5 years(n=20)	4.16	.72		A
Relationship with parents	1~2 years(n=74)	4.23	.55	.59	
	3~4 years(n=107)	4.21	.51		
	More than 5 years(n=20)	4.07	.58		
Aptitude in teaching	1~2 years(n=74)	4.16	.41	.79	
	3~4 years(n=107)	4.19	.40		
	More than 5 years(n=20)	4.05	.63		
Performing ability	1~2 years(n=74)	4.53	.56	7.31***	B
	3~4 years(n=107)	4.32	.38		AB
	More than 5 years(n=20)	4.11	.55		A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1~2 years(n=74)	4.32	.46	.98	
	3~4 years(n=107)	4.29	.42		
	More than 5 years(n=20)	4.14	.46		
Qualification teaching (Total)	1~2 years(n=74)	4.36	.46	2.46	
	3~4 years(n=107)	4.27	.36		
	More than 5 years(n=20)	4.11	.54		

* $p < .05$. ** $p < .01$. *** $p < .001$.

의하게 나타났다($F = 18.55, p < .001$).

교직능력(총점)에 대해서도 전문대를 졸업한 교사($M = 3.54$)와 대학($M = 4.35$), 대학원($M = 4.24$)을 졸업한 교사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21.55, p < .001$).

즉, 전문대를 졸업한 교사보다 대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가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7과 같이 교사의 경력에 따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와의 관계, 교직적성, 유아발달영향, 교직능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생활지도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생활지도능력에서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M = 4.16$)와 1~2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M = 4.55$)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4.69, p < .05$).

직무수행능력에서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M = 4.11$)와 1~2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M = 4.53$)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7.31, p < .001$).

즉 1~2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에 비해 남자유아교사의 생활지도능력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

<Table 8> Female teachers' perception on non-regular male teacher's qualification in teaching

Variable	Contents	M	SD	t
Living guidance ability	Have(n=169)	4.33	.61	-5.25***
	Have not(n=32)	4.70	.29	
Relationship with parents	Have(n=169)	4.17	.57	-3.08**
	Have not(n=32)	4.38	.31	
Aptitude in teaching	Have(n=169)	4.13	.42	-3.43***
	Have not(n=32)	4.41	.33	
Performing ability	Have(n=169)	4.31	.45	-4.70***
	Have not(n=32)	4.74	.54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Have(n=169)	4.24	.45	-3.44***
	Have not(n=32)	4.53	.32	
Qualification teaching (total)	Have(n=169)	4.24	.41	-4.18***
	Have not(n=32)	4.58	.34	

* $p < .05$. ** $p < .01$. *** $p < .001$.

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8과 같이 교사집단의 비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에 따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지도능력, 학부모와의 관계, 교직적성, 직무수행능력, 유아발달영향, 교직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지도능력에서는 비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교사($M = 4.70$)가 접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M = 4.33$)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5.25, p < .001$).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비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교사($M = 4.38$)가 접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M = 4.17$)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3.08, p < .01$). 교직적성에 대해서 비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교사($M = 4.41$)가 접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M = 4.13$)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3.43, p < .001$). 직무수행능력에서도 비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교사($M = 4.74$)가 있는 교사($M = 4.31$)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4.70, p < .001$).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접해본 경험이 없는 교사($M = 4.53$)가 있는 교사($M = 4.24$)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3.44, p < .001$).

교직능력(총점)에서도 비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교사($M = 4.57$)가 있는 교사($M = 4.24$)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4.18, p < .001$).

즉, 비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교사가 접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에 비해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학부모의 성별, 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는 Table 9와 Table 10과 같다.

Table 9와 같이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지도능력,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교직적성, 직무수행능력, 유아발달영향, 교직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유아교사의 교직적성에 대해서는 아버지가($M = 3.86$) 어머니($M = 3.71$)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2.05, p < .05$).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도 아버지($M = 4.15$)가 어머니($M = 3.89$)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3.24, p < .01$).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아버지($M = 4.10$)가 어머니($M = 3.91$)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t = 2.44, p < .05$), 교직능력(총점)에 대해서도 아버지($M = 4.05$)가 어머니($M = 3.85$)보다 교직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2.89, p < .01$).

즉,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교직적성, 직무수행능력,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직능력)에 대해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10과 같이 학부모의 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에 따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지도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담임교사로 남자유아교사를 직접 경험한 학부모($M = 4.26$)와 옆 반 선생님의 간접 경험한 학

<Table 9> Perception on male teachers' qualification in teaching by parents gender

Variable	Contents	M	SD	t
Living guidance ability	Fathers(n=53)	4.10	.49	1.89
	Mothers(n=154)	3.94	.56	
Relationship with parents	Fathers(n=53)	3.93	.61	1.43
	Mothers(n=154)	3.79	.63	
Aptitude in teaching	Fathers(n=53)	3.86	.45	2.05*
	Mothers(n=154)	3.71	.46	
Performing ability	Fathers(n=53)	4.15	.52	3.24**
	Mothers(n=154)	3.89	.50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Fathers(n=53)	4.10	.49	2.44*
	Mothers(n=154)	3.91	.50	
Qualification teaching (total)	Fathers(n=53)	4.05	.40	2.89**
	Mothers(n=154)	3.85	.44	

* $p < .05$. ** $p < .01$. *** $p < .001$.

<Table 10> Parents (who experienced regular male teacher) perception on teacher's qualification in teaching

Variable	Contents	M	SD	F	Duncan
Living guidance ability	Direct experience(n=23)	4.15	.54	2.11	
	Indirect experience(n=57)	4.04	.46		
	Inexperience(n=127)	3.92	.58		
Relationship with parents	Direct experience(n=23)	4.26	.68	9.84***	B
	Indirect experience(n=57)	3.93	.55		A
	Inexperience(n=127)	3.69	.61		A
Aptitude in teaching	Direct experience(n=23)	4.13	.49	16.61***	C
	Indirect experience(n=57)	3.86	.40		B
	Inexperience(n=127)	3.62	.43		A
Performing ability	Direct experience(n=23)	4.09	.51	14.54***	B
	Indirect experience(n=57)	4.22	.44		B
	Inexperience(n=127)	3.81	.50		A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Direct experience(n=23)	4.05	.53	11.81***	B
	Indirect experience(n=57)	4.20	.43		B
	Inexperience(n=127)	3.83	.50		A
Qualification teaching (Total)	Direct experience(n=23)	4.14	.49	12.57***	B
	Indirect experience(n=57)	4.05	.35		B
	Inexperience(n=127)	3.78	.42		A

* $p < .05$. ** $p < .01$. *** $p < .001$.

부모($M = 3.93$), 경험이 없는 학부모($M = 3.69$)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9.84$, $p < .001$). 남자유아교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부모가 경험이 없는 학부모 보다 학부모와의 관계 면에서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적성에서는 담임교사로 경험한 학부모($M = 4.13$)와 옆 반 선생님이 본 학부모($M = 3.86$)와 경험이 없는 학부모($M = 3.62$)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16.61$, $p < .001$). 남자유아교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부모가 경험 없는 학부모 보다 남자유아교사의 교직적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능력에서는 담임교사로 경험한 학부

모($M = 4.09$), 옆 반 선생님이 본 학부모($M = 4.22$)와 경험이 없는 학부모($M = 3.8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 14.54$, $p < .001$). 남자유아교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부모가 경험이 없는 학부모 보다 남자유아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담임교사로 경험한 학부모($M = 4.05$), 옆 반 선생님이 본 학부모($M = 4.20$)와 경험이 없는 학부모($M = 3.83$)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 11.81$, $p < .001$). 남자유아교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부모가 경험이 없는 학부모 보다 남자유아교사가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능력(총점)에서는 담임교사로 경험한 학부모($M = 4.14$), 옆 반 선생님이 본 학부모($M = 4.05$)와 경험이 없는 학부모($M = 3.78$)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12.57, p < .001$). 남자유아교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부모가 경험이 없는 학부모 보다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즉 남자유아교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부모는 경험이 없는 학부모에 비해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학부모와의 관계, 교직적성, 직무수행능력,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직능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총점)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Table 11과 같이 생활지도능력, 학부모와의 관계, 교직적성, 직무수행능력, 유아발달영향, 교직능력 전체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지도능력에서 교사($M = 4.39$)가 학부모($M = 3.98$)에 비해 남자유아교사의 생활지도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 = 7.30, p < .001$).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교사($M = 4.23$)가 학부모($M = 3.82$)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6.29, p < .001$).

교직적성에서도 교사($M = 4.17$)가 학부모($M = 3.75$) 보다 남자유아교사의 교직적성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9.68, p < .001$).

직무수행능력에서도 교사($M = 4.38$)가 학부모($M = 3.96$)에 비해 남자유아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8.48, p < .001$).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교사($M = 4.29$)가 학부모($M = 3.96$)에 비해 남자유아교사

<Table 11> Teacher and parents' perception on male teacher's qualification in teaching (total score)

Variable	Contents	M	SD	t
Living guidance ability	Teachers(n=201)	4.39	.59	7.30***
	Parents(n=207)	3.98	.55	
Relationship with parents	Teachers(n=201)	4.23	.68	6.29***
	Parents(n=207)	3.82	.63	
Aptitude in teaching	Teachers(n=201)	4.17	.42	9.68***
	Parents(n=207)	3.75	.46	
Performing ability	Teachers(n=201)	4.38	.49	8.48***
	Parents(n=207)	3.96	.52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Teachers(n=201)	4.29	.44	7.02***
	Parents(n=207)	3.96	.51	
Qualification teaching (total)	Teachers(n=201)	4.30	.42	9.19***
	Parents(n=207)	3.90	.44	

* $p < .05$. ** $p < .01$. *** $p < .001$.

가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7.02, p < .001$).

교직능력(총점)에서도 교사($M = 4.30$)가 학부모($M = 3.90$)에 비해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9.19, p < .001$).

즉,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생활지도능력, 학부모와의 관계, 교직적성, 직무수행능력,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직능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교사가 학부모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 기관에서의 역할 및 자질 그리고 교사로서의 교직능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관 선택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학부모와 실제 남자유아교사와 함께 일하게 될 여자유아교사들은 남자유아교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후 유아교육 현장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두 집단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연구결과는 남자유아교사가 유아교육현장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Lee(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교사비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교사는 이를 우려할만한 것이라 보았지만, 부모는 중도적인 입장

을 나타냈다. 또한 남녀교사의 반의 참여형태와 비율에서도 교사는 두 문항 모두 상관없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남녀교사 혼합반 형태를 원하고 있었고, 여성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학부모의 경우 남자유아교사의 부족 현상을 크게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으며, 남자유아교사에 대해 부담감은 갖고 있지만 필요성에는 두 집단 모두 남자유아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는 남자교사에 대해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꾸준한 부모교육을 통해서 남자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자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두 집단 모두 유아의 잠재력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해주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유아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잠재력 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Lee(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남자유아교사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역할로 교사는 ‘남성 역할모델 제공’, 학부모는 ‘많은 신체적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Jang(2002)과 Jo & Lee(2004b)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교사는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남자유아교사의 부재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유아교사의 남성 역할모델 제공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는 남자유아교사의 부재를 ‘크게 문제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남자유아교사가 있다면 신체적·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한 실외놀이 및 신체적 활동을 더 기대하는 것으로 연결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남자교사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접근한다면 학부모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스킨십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집단 모두 ‘좋다’라는 결과가 높았지만, 학부모의 경우 ‘싫다’라는 응답도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고, 스킨십 허용수준도 단순한 신체접촉을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전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이는 남자유아교사의 스킨십에 대해 남아의 학부모나 남자유아교사를 접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긍정적이었으나, 여아의 학부모나 남자유아교사를 접한 경험이 없는 학부모 인식은 부정적이었던 Lee(2005)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남자유아교사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통하여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자유아교사의 조건에 대해 학부모가 교사 보다 남자 교사의 학력에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유아교사의 전공은 두 집단 모두 반드시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에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Lee(2005)와 Jang(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다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교사집단에서 남자유아교사의 조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자유아교사의 경력에서는 교사(초임~1년)와 학부모(2년~4년)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젊은 여교사들은 점점 남자유아교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학부모의 경우 남자유아교사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검증된 남자유아교사를 받아들여려는 의도와 아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도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남자유아교사의 결혼여부는 교사의 경우 미

혼, 학부모는 기혼 교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전업주부들이 기혼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Lee(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또한 기혼자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유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자신의 육아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 미혼을 많이 선택을 하였는데 이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원하는 남자유아교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들과 부담 없이 융화될 수 있는 미혼 남자유아교사를 선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자유아교사가 교직능력에 있어서 남녀교사가 비슷하거나, 남자유아교사가 더 높게 평가된 Jang(2002)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적을수록, 비정규직 남자교사를 접해본 경험이 적을수록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해 높게 인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비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교사가 접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 교사(체육 같은 특기 교사)의 업무 특성상 담임경력이 없고,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수업내용 및 태도 그리고 사명감에 대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관련경험 때문에 비정규직 교사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규직 남자유아교사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교직능력은 정규직 남자유아교사를 경험한 교사집단의 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다섯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학

부모 인식을 살펴본 결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남자유아교사를 경험한 학부모는 경험이 없는 학부모에 비해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유아교사와의 심층면접을 연구한 Choi(2003)에서도 초기에 우려하던 학부모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좋다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 일치한다. 이는 남자유아교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부모는 남자유아교사의 경험으로 인해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점차적인 남자유아교사의 경험은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자유아교사가 유아교육기관에 적합하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 자신의 역할의 보조자로 남자유아교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교사가 학부모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남자유아교사의 교직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남자유아교사와 융화되어 함께 조직을 이끌어 가야할 교사 집단에서 더 높게 평가한 것은 남자유아교사의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성(性)이 편중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7차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양성평등 관점’을 도입, 교과서 삽화에서는 가사를 돌보는 엄마와

직장에 나가는 아빠의 모습을 삭제했으며, 사회 교과서에서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고정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닮아야 할 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역할과 환경의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자유아교사의 부재는 우리 사회가 변화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남자유아교사를 질적·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인식변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대상을 표집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고, 대상 유아의 연령도 3~5세에 편중되어 있어 좀 더 광범위한 대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는 남자유아교사가 ‘필요는 하다’ 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남자유아교사에 대한 인식개선 부모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남자유아교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남녀교사가 함께 유아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Cameron, C., Moss, P., & Owen, C. (1999). *Men in the Nursery : Gender and Caring Work*. London : Paul Chapman.
- Choi, J. M. (2003). *The perceptions about male early childhood teachers related with gender imbala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K. L. (2001). *Parents' Perception of Man and Woman Teacher*. Unpublished master's

-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angwon University, Changwon, Korea.
- Choi, Y. C. (2003). Male Teach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8(3), 25-43.
- Cushman P. (2005). Let's hear it from the males : Issues facing male primary school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1, 227-240.
- Farquhar, S. (1997). Are male teacher really necessary?, ED 417-821.
- Gu, S. L. (1999). A study on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Child Behavior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Hwang, J. A. (2002). A study on the effects of teacher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ir perception of gender role in day care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Yongin, Korea.
- Jang, I. H. (2002). Kindergarten teaching staffs' perception about male kindergarten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 Jo, I. S. (2009). A Study on Recognition of Students and Parents on Role-Pla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ang-won University, Kangwon, Korea.
- Jo, K. J., & Lee, H. S. (2004a). Male Students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4(1), 187-214.
- Jo, K. J., & Lee, H. S. (2004b). Female Student Teachers' Perceptions of Mal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4(6), 43-65.
- Kim, I. K. (2002). Experience of male teachers in the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9). Research Reports.
- Lee, H. Y. (2006). A study on parents' perception of male teachers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O. (1999). Teacher's Gender Role Perception and Attitudes in Childhood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16(2), 217-237.
- Lee, N. M., & Jo, K. J. (2006). Mothers' perceptions on male teachers of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5(4), 299-321.
- Mills, M., Martino, W., & Lingard, B. (2004). Attracting, recruiting and retaining male teachers : policy issues in the male teacher debat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5(3), 335-369.
- Montecinos, C., & Nielsen, L. E. (1997). Gender and cohort differences in university students' decisions to become elementary teacher education major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8(1), 47-54.

- Robinson, B. E. (1988). Vanishing breed : Men in child care programs, *Young Children*, 43(6), 54-58.
- Rodriquez, E. R. (1997). What does gender have to do with it? : Mal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15979).
- Seo, J. Y. (2004). Teenagers' Perceptions of the Male Teachers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eong, S. Y. (2008). Gender Imbala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The Absence of Male Teacher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7(1), 231-244.
- Shaham, Dan. (1991). Mal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Self and social perception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66417).
- Sim, M. O. (2002). Issues on Feminization of Teaching.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5(1), 151-165.
- Skelton, C. (2003). Male primary teachers and perceptions of masculinity. *Educational Review*, 55(2), 195-209.
- Sumsion, J. (2000). Negotiating other ness : A male early childhood educator's gender positio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8(2), 129-140.

2011년 12월 31일 투고, 2012년 3월 15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